

<2015년 1월 19일 새벽 정리 요약 말씀>

할렐루야!

금년도는 “주와 함께 전도”가 금년도 표어입니다.

첫째는 자기를,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이끌려 오는 것입니다. 자기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자기 먼저 경험하고 믿어보고 성경을 들어보고 옆의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관리가 전도입니다.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혹시 자기가 다른 마음을 먹는가, 자기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일체 되는 생활이 약해졌는가. 자기가 철저하게 주와 하나가 딱 되어야 됩니다.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할 것!

마태복음 4장 18절을 보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곧 그 말을 듣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좇으니라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깎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리고 예수를 좇으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니까 물론 그랬지만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습니다. 자신만만하니까.

신앙생활만 해결이 된 것이 아니라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나를 따라 오라.” 했을 때. 그러니 우리도 따라가야 그것이 <관리>입니다.

주를 따라가는 것이 인생의 관리입니다! 따라가는 것이 자기를 관리하는 것이다!!

“빨리 따라 하도록 하라. 그게 자기 관리다. 그것이, 따라가는 것이 전도다.”

계속 따라오면, 말씀을 들으니까 전도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자기 관리!

또 하나는 섭리사에 오면서 여러분들이 과거를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이 떨어졌을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나, 과거에 무엇을 하셨나, 선생님이 과거에 어떻게 대해 주었나를 보면 시험 든 것도 다시 복직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심리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은혜가 안 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확실히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제대로 은혜를 칼날같이 가슴에다 꽂습니다. 머릿속에다 불을 붙여 주고.

온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대하신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에 대해 알 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러 갈 때도 이와 같이 멋있고 뜻있게 사람을 찾으면서 전도해야지, 그냥 청증이 왔다고 돌아온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 중의 뜻있는 사람 때문에 청증이 모였다. 뜻있는 사람 때문에 그 모임이 되었다.’ 이렇게 까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약간 좀 기대에 어긋난 일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선생님도 어느 때는 보면 2-30명씩 사람들이 왔다 가는데, 결국 한 사람 남고 다 빠져나갑니다. 그때 금방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빠져나가서 마지막에 하나 남더라는 것입니다.

‘아, 그 때 모든 상황은, 그 집회는 그 한두 명 때문에 한 집회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초점 몇 개를 맞추었습니다. “따라가라.” 는 초점도 맞추었습니다.

“따라가라. 무조건 따라가라. 의심하든지, 이해가 안 되든지 무조건 따라가라.”

그렇게 따라와서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짝 따라오면, 아주 바짝 봐서 근본을 깨닫고 확실히 알고 갈 때 100배, 200배 더 크나큰 쇼크적인 큰 사람이 되고 크는데 영향이 좋습니다.

또 무엇에 초점을 맞추었나 하면, “따르라.” 했습니다.

“자기가 따르면 자기가 관리된다.”

자기관리 좀 하면서 남도 관리해야지, 남 관리만 계속 하다보면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 초점을 많이 맞추었습니다.

주를 증거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성령을 말씀하며, 그를 말씀할 때 자기에게 더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도 말씀하시더라.”

“내가, 자기가 확실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나님이 확실하게 역사하신다.” 거기에도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됐지요?

그러면 여기서 모든 새벽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 말씀하셨으니, 듣고 그대로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무엇을 했나에 대해서, 베드로를 전도한 상황을 핵심만 간략하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 시대도 모두 그러함을 깨닫고 느끼며 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했어도 잘 못 깨달으니 이들 옆에서 들은 자들이 더욱 깨우쳐 주고 가르치게 해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잘 적고, 열심히 적으라고 했습니다. 보라고 했습니다.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머리로 적지 말고 붓으로 적어라. 머리로도 적어야 되지만, 가다보면 잊어버린다.” 했습니다. 비가 올 때는 우산을 안 잊어버리는데 비가 안 오니까 우산을 놓고 왔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머릿속에 다 저장되어 있는데, 가다보면 다른 것으로 인해서 머릿속에 저장된 것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글로 남기면 저장한 것이 남이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역사를 글로, 책으로 남겼습니다.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과 주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내가 이들을 가르치고 말한 것을 지켜 행함이 충만키를 간절히 간구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빠이빠이! 안녕!

